

남원시장,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최경식 시장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인건비 절약 위해 자동화 선별기 사업 등 역제안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 18일, 농업인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관내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공유

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또한 농업인들은 남원형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발굴 제안과 함께 청년 창업농들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주기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으며, 특히 도농 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등 생산비 증가와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에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 농업인들은 관심이 농업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 인재육성 건립 등 자녀들의 교육 문제부터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남원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간담회의 화두로 대두된 나라 전체가 긴축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에서 효율적인 예산지원 반영을 위한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등 농민들과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며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자동화 선별기 사업 등을 역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무리에서 최 시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예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맞춤형 스마트 농업과 전문 농업인력 육성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사업들을 확실히 챙겨가겠다며,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농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최경식 시장이 지난 18일, 농업인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는 4·19혁명일을 맞아 지난 19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남원시, 4·19혁명 기념식 개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남원시는 4·19혁명일을 맞아 지난 19일,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이만선 남원시의회 부의장, 손순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마산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임원진,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

행되었다. 기념식은 김주열 열사의 약력 소개, 기념사, 남원시립국악단의 기념공연, 4·19노래 제창, 묘역과 추모관 참배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념사에서 “고향 남원을 떠나 멀리 마산에서 불의에 항거하며 희생한 김주열 열사와 4·19혁명에 함께한 우리 선대들을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하자”며 추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를 지난 18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었다.

순창군, ‘돈 버는 농업’ 실현 가속화

순창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관내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돈 버는 농업’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갈 전망이다.

군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도입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을 환영하는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행사를 지난 18일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지역 내 농가주를 비롯해 지난 2월 라오스 현지에서 실시된 면접을 통해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5개월 동안 관내 농가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준수사항, 인권 보호, 농작업 안전 요령, 법적 사항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어졌으며, 교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한국에서의 근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만큼 두름, 고추, 담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영농작업에 근로자들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수입을 보장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62회 순창 군민의 날’ 성료

순창군, 기념식서 순창군민의 장 최동현·강순옥·김택수 수상 영예

순창군이 지난 19일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을 기원하는 ‘제62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마무리했다.

제62회 순창 군민의 날 행사는 주민 및 관광객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축등행렬(고이동), 육천줄다리기(고싸움), 대취타와 풍물패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와 더불어 관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골목패스티벌, 청소년 어울마당이 함께 어우러져 행사가 더욱 빛

났다. 또한 이번 행사에 중앙도로 상인회와 관내 사회단체의 떡거리 부스 운영 등 행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이끌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기념식은 최영일 순창군수의 기념사 낭독을 시작으로 순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한 순창 군민의 장과,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 순창군민의 장은 문화장에 전북 관소리를 집대성한 관소리

연구가인 최동현(70세)씨, 산업근로장 순창장류제조기능인 강순옥(78세)씨, 애항장에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75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군민화합 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장윤경, 김태연, 하이키 등이 출연해 자리를 가득 메운 지역민들에게 인기곡을 선사하며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으며 이후 화려한 불꽃놀이로 군민의 날 행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의 행사를 통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단합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순창 군민의 날이 모든 참석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쾌거

임실군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60억원, 도비 18억원을 확보해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임실치즈테마파크 일원을 중심

으로 지역관광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자체 특화 소재를 발굴·연계하여 지역관광 자립 발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체 평가와 문체부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지자체 3개소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은 준비 단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구상에 노력했다.

특히, 전북연구원 융복합관광팀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역 소식통

남원 운봉 바래봉 철쭉제 5월 19일까지 개최

남원 운봉읍 바래봉 일원과 지리산허브밸리 일원에서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28회 지리산 운봉바래봉 철쭉제를 ‘천상의 정원에서 힐링의 기쁨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나무로 만든 승려들의 밧그릇인 ‘바래봉’을 얹어 놓은 모양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바래봉’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에 나서며, 행사장 입구에는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대, 체험 부스, 임시장터 등을 운영하여 등산객과 상춘객에게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 실시

임실군이 오는 24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한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https://agridu.net>)이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o.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관내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지난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 받게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